

■ 기술개발성공사례

헨디 소프트웨어 개발한

(주)헨디소프트 대표 安 英 景 사장

수하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하이테크 벤처기업을 창업하기가 이다지도 어려운가 하는 것이 창업 당시 느꼈던 비애입니다. 9개월을 고민하면서 인선(人選)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공감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92년 병역특례연구기관으로 올해에는 SI업체 인가를 받은 헨디소프트사는 금년 6월, 드디어 헨디소프트의 윈도우용 워드프로세서인 「헨디 워드 아리랑」 10버전으로 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아리랑」은 워드프로세서와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 시트를 함께 구현하며, 전자메일(mail)기능이 있어 조직내 네트워크 구축에 용이하고, 펜인식이 가능하며, 전자 결제시스템 기능을 갖추고 있어 기업 전자화에 필수적인 제품.

워드프로세서라고 알리기에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며 가격도 저렴(9만9천원)한 「아리랑」은 국내사용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워드프로세서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친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워드프로세서 「아리랑」으로 광고하고 있는 안사장은 요즘 해외 마케팅에 경험과 안목을 갖춘 마케팅 전문가를 찾고 있다.

벌써부터 날아드는 해외로부터의 팩스도 팩스려니와, 안사장이 예측했던 윈도우 시장이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것으로 보여 94년말부터 해외 마케팅을 시작, 96년쯤이면 경영상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2억5천만명의 인구에 1억대의 PC가 보급되어 있어요. 즉 25인당 1대의 컴퓨터가 보급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

『나이 50이 되면 「헨디소프트 이야기」를 출판하고 싶습니다. 성공의 비결이요? 아직은 성공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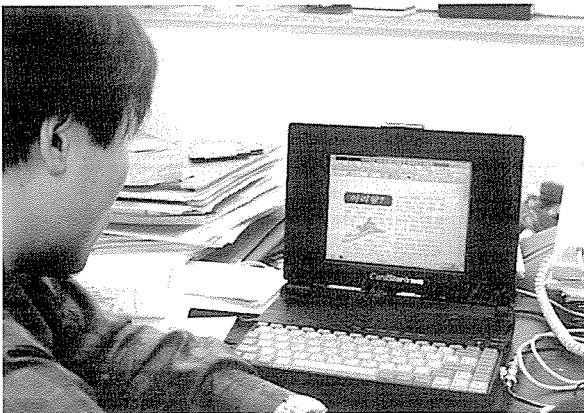
예의 그 사람 좋은 웃음을 띤 불혹의 안사장의 책상뒤로 야전침대가 눈에 들어온다. 새해 첫 만남으로 송실대, 과학원을 거쳐 10년동안 KIST에 근무한 뒤 「(주)헨디소프트」사를 창업한 안영경(安英景, 헨디소프트 대표, 40세) 사장을 찾아갔다. 헨디소프트는 문자인식의 연구로 요즘들어 부쩍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는 벤처 캐피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스템공학연구소 김봉일박사가 총괄했던 88올림픽 전산화프로젝트의 개발 진두지휘를 맡았던 안사장은 88올림픽을 마감하는 외국기자들의 「프레스 리뷰」에서 외국 신문들로부터 그가 진행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88서울올림픽에서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금메달이 있다면 그것은 정보시스템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자이언스」의 역할은 아주 뛰어났다는 것.

올림픽이 끝나고 안사장은 세계시장에 나가서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남들이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 것 중에서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고심한 끝에 필기체 인식 등의 「Man Machine Interface 기술」을 어플리케이션에 탑재해서 드라이브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 지난 91년 2월4일 자본금 10억원의 (주)헨디소프트사를 설립, 소프트웨어 사업에 본격 착

정보화의 초기 단계인 중국의 인구가 13억입니다. 이들도 정보화 없이는 도태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가 예상되며 따라서 97, 8년도가 되면 시장규모가 커질것으로 보여집니다. 근 4만5천여자(字)나 되는 한자를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지가 문제인데, 동양 문자권에서 상정적인 중국글자의 입력 방식이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써서 한자를 인식할 수 있다면 상당한 정보화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시장을 보고 펜인식 연구사업을 한다면 임팩트가 될 것으로 보고, 96년 2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할 것입니다.]

최근 노벨, 알카텔사 등에서 인식률이 좋고 Multilingual, 즉 여러 나라 문자들의 인식이 가능해서 좋고, 국제화 제품으로는 당신네 제품이 빨리 성공할 것 같으니 함께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외국으로부터의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주)헨디소프트사의 윈도우용 워드프로세서 「아리랑」의 화면.

고 한다.어떤 경우는 펜인식까지 패키지로 판다면 1백만 카피쯤 사겠다는 제안도 있는데, 영어, 숫자도 쉽게 인식되며 CIC 나 GO사보다 인식률이 빠르고 좋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자동 띄어쓰기, 「e」를 치면 영문 모드 「g」를 치면 「히라가나」모드가 되는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면에서 호평을 듣고 있다. 안사장은 인터내셔널 버전을 위해 외국인의 필기방식을 연구해서 커스터마이징할 방침이다.

직원 재교육과 헨디소프트 문화 다지기에 노력

『지난 2년간 우리는 기술축적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인력을 재교육시켜 엔지니어를 키우는 일에 몰입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대학, 대학원을 나온 인력도 재교육을 시켜야만 연구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것도 바로

우리나라가 기술선진국과 똑같이 스타트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5명의 엔지니어를 키우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두세달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그는 그의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며 스스로 「헨디소프트 문화」라는 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등 헨디소프트 직원들 모두의 직장으로 만드는 데 노력해왔다. 그의 이러한 노력 때문인지 43명의 총 인원중 「헨디」를 떠난 직원은 단 한명뿐이다.

헨디소프트사의 주식은 주주, 경영진,사원에 각각 삼분의 일씩 분배되며, 사원들도 의사결정에 참가한다.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안사장은 기업의 형태는 구성원의 문화의식이라고 보고 1992년을 문화다지기와 기술축적의 해로 삼아, 인사정책, 제도, 규정들을 틈틈이 써서 「헨디소프트 문화」라는 책을 직접 만들어 배포했는데, 여기서 안사장은 「일에 대한 재미,가치,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이 올바른 직장의 모럴」이라 말하고 있다.

창업시에는 95년해야 올 것으로 예측했던 윈도우시장이 의외로 빨리 오고 있으며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에도 윈도우즈 플랫폼이 빨리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는 안사장은 남들보다 빨리 시작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말한다.

『기술은 인심의 하모니입니다. 빌딩을 올리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사업은 하나씩 쌓아야 튼튼해집니다. 자기가 할 일 다했다고 본인의 벽돌만 쌓고 가버리면 곧 무너지고 말지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가장 큰 자질은 학력도 경력도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는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아트(Art)거든요.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개발에 열중하는 정열이 있는,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중요합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경직된 관리구조속에서 무슨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다음 프로젝트를 스스로 계획해 보고, 브레이크 다운한 후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자유출근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헨디소프트,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향해 도약하려는 젊은 그룹의 선두에 서서 94년으로 나아가는 안사장과 「헨디소프트」가족 마흔세명의 열정적인 일 사랑, 이 하모니가 이 겨울을 훈훈하게 하고 우리 경제를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후 세계적인 지능형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의 대표가 될 안영경사장의 「헨디소프트 이야기」가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을지 타임머신을 타고 미리 보고 올 수는 없을까.

88
올림픽 때
眞價
발휘한
정보시스템
:
세계시장
향해
「우뚝」